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계시와 이성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2부 '현대신학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제4장 '계시와 이성', 81~87쪽 무렵(본문 쪽 표시 기준. 다음 장이 89쪽 제5장)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자유주의 계시관을 세 관점으로 나눠 살피겠다고 밝힌다. 이 장은 그 가운데 '규범적 관점', 곧 무엇이 옳고 그름의 기준인가를 묻는 자리에서 계시와 이성의 관계를 다룬다. 그는 먼저 자신이 공격하는 것이 이성 자체가 아니라고 못 박는다. 공격 대상은 '하나님에게서 독립해 스스로 최종 기준이 되려는 이성'이다. 이어 성경이 추론으로 가득하다는 점, 그러나 그럴듯한 추론이 늘 옳지는 않다는 점, 그리고 논리만으로는 전제가 참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차례로 보인다. 그다음 이성이 계시를 평가해야 한다는 스피노자와 칸트의 주장에 뜻밖에도 동의한다. 다만 제대로 작동하는 이성이라면 하나님의 권위를 고려하고, 결국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성을 다른 것(역사·감정·경험 등)으로 바꾸려는 현대 신학의 시도, 궁극 기준을 증명할 때 생기는 순환성, 피조물 이성의 한계를 다루며 장을 마친다.

📜 절별 정리

(원문에 소제목이 없어 논증 단락을 따라 여덟 절로 나눴다.)

📜 1. 들어가며: 비판 대상은 이성이 아니라 '자율적 이성'

프레임은 다음 몇 장의 구성을 미리 알린다. 규범적 관점에서는 계시와 이성, 상황적 관점에서는 계시와 역사, 실존적 관점에서는 계시와 인간의 주관성을 다루고, 끝으로 계시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 장 더 다룬다. 그는 앞 장들에서 이미 이 주제를 많이

읽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분명히 한다. 그가 거부하는 것은 두 가지 주장이다. 첫째, 인간 이성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작동한다. 둘째, 그런 이성이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의 최종 기준이다. 둘째 주장은 성경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그 이성이 심판해야 한다는 뜻이다.

1. 이 장은 '규범적 관점'에서 본 자유주의 비판
2. 공격 대상은 이성 자체가 아니다
3. 거부하는 것 ① 이성은 자율적으로 작동한다
4. 거부하는 것 ② 자율적 이성이 최종 기준이다
5. 성경도 이성의 심판대에 세우는 태도가 문제

📜 2. 이성은 하나님의 선물: 성경은 추론으로 가득하다

프레임에 따르면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다. 우리말·영어 성경에 '이성'이라는 낱말이 철학 용어처럼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식의 추론이 가득하다.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자주 이유를 함께 주신다. 안식일 계명에는 창조라는 이유가, 신명기의 같은 계명에는 출애굽이라는 또 다른 이유가 붙는다. 하나님은 “서로 변론하자”고 부르시고, 바울은 “그러므로”로 앞의 논증에서 소망과 순종을 이끌어 낸다. 선악과 금지처럼 이유 없어 보이는 명령에도 이유가 붙어 있다. 먹는 행위와 죽음 사이의 연결이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관계를 끊어 죽음을 부르는 선택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합리적이다. 반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부른다.

1.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2. 하나님은 명령에 이유를 붙이신다
3. 바울의 “그러므로” = 논증에서 나온 순종
4. 하나님 섬김은 합리적, 불신은 어리석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신명기 5:15

같은 명령에 '애굽에서 구원'이라는 또 다른 이유가 붙는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사야 1:18

하나님이 직접 “서로 변론하자”며 이성적 대화로 부르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로마서 8:1

“그러므로”: 앞의 논증에서 소망(정죄 없음)이 나온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12:1

“그러므로”: 앞의 논증(하나님의 자비)에서 순종이 나온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창세기 2:17

이유 없어 보이는 명령에도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유가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시편 14:1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잠언 1:32(?)

불순종은 어리석음이다. 번역본 표기는 '전 1:32'인데 전도서 1장은 18절까지라 오기로 보인다. 잠언 1:32일 가능성이 크지만 원서 확인 필요

> **잠언 1:32**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고린도전서 1:20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지혜는 결국 어리석음이 된다

>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 3. 그럴듯한 추론과 옳은 추론: 이성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옳은 추론과 그른 추론을 분명히 구별한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라 두려워서 그랬다”는 것이다. 프레임은 같은 상황이라면 자신도 했을 법한 그럴듯한 추론이라고 솔직히 인정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추론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강하게 꾸짖으셨다. 그래서 이성은 좋은 선물이지만 틀릴 수 있고 죄의 영향을 받는다. 프레임은 이성을 보고 듣는 능력처럼 인간이 가진 하나의 능력으로 정의한다. 곧 두 말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어떤 논증이 앞뒤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다. 눈과 귀가 가끔 착각하듯 이성도 늘 정확하지는 않다. 게다가 죄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추론에 대한 편견을 심고, 우리를 '지적 자율'에 매달리게 한다. 그런데 지적 자율은 일관되게 밀고 나갈수록 오히려 지식을 무너뜨린다.

2. 달란트 묻은 종의 핑계도 '그럴듯'했다
3. 이성 = 일관성·타당성을 판단하는 능력
4. 눈·귀처럼 이성도 틀릴 수 있다
5. 죄는 이성을 자율로 끌고 가 왜곡한다

마태복음 25:14-30

달란트 비유 전체. 옳은 추론과 그른 추론을 대조하는 장면

14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6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17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18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9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

마태복음 25:24-25

종의 그럴듯한 자기변명: 겉보기에 합리적인 추론

24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마태복음 25:26

예수님이 그 추론을 악하다고 정죄하신다. 이성은 죄에 물들 수 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성은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지만, 그것은 오류를 범하기 쉽고 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4.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참된 전제의 문제

'이성'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쓰인다. 하나는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추론을 있는 그대로 가리키는 '기술적' 의미다. 이 의미에서는 엉터리 추론도 추론이다. 다른 하나는 '마땅히 이래야 하는' 추론을 가리키는 '규범적' 의미다. 이 의미에서 엉터리 추론은 추론이 아니라 불합리다. 그렇다면 좋은 추론의 조건은 무엇인가? 논리 법칙을 어기면 이성을 어긴 것이니 논리는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신학 교수는 쥐를 먹는다, 클라크 박사는 신학 교수다, 그러므로 클라크 박사는 쥐를 먹는다”는 형식상 완벽한 삼단논법이지만 첫 전제가 거짓이라 결론도 믿을 수 없다. 좋은 논증에는 맞는 형식과 참된 전제가 함께 필요하다. 그런데 전제가 참인지는 논리가 알려 주지 못하고, 그 지식은 논리 바깥에서 와야 한다. 프레임은 성경적 세계관에서 그 바깥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논리적 진리와 모든 인간 합리성의 저자이자 최종 기준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면 비합리주의로, 또 합리주의로 무너진다(제3장에서 다룬 내용).

1. 기술적 이성: 엉터리 추론도 추론
2. 규범적 이성: 옳게 작동하는 추론만 이성
3. 형식이 맞아도 전제가 거짓이면 헛것
4. 전제가 참인지는 논리가 못 알려 준다
5. 논리는 하나님을 전제할 때 제대로 선다

📜 5. 이성은 최종 발언권을 갖는가: 스피노자와 칸트에 대한 '놀라운 동의'

자유주의 계시관은 스피노자 같은 합리주의 철학자에게서 시작됐다. 그들에게는

안에서의 종교』에서 천사가 말해도 그가 진짜 천사인지, 따를 만한지는 이성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프레임은 이 논리를 하나님께까지 넓혀 본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듯 나에게 말씀하셔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인지 순종할 만한지는 내 이성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는 “그렇다”고 동의한다. 다만 그가 말하는 이성은 최선의 상태로 작동하는 규범적 이성이다.
스피노자와 칸트의 문제는 이성이 자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가정을 따져 보지도 않고 깔고 들어갔다는 데 있다. 이 가정은 생각의 난제뿐 아니라 영적 재앙을 낳는다. 제대로 된 이성적 평가라면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를 고려할 것이고, 그 말씀을 반론 없이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이성은 제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완전히 신뢰할 만하다.

1. 자유주의 계시관의 뿌리는 합리주의 철학
2. 칸트: 천사의 말도 이성이 판정해야
3. 프레임: 이성이 평가해야 한다, 동의!
4. 단, 자율이 아닌 하나님 아래의 이성
5. 바른 평가의 결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 6. 이성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는 시도들, 그리고 복음주의자에게

후기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간 이성 아래 두는 데 거부감을 느꼈다. 그러나 이성이 자율적이라는 생각은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율성 때문에 이성을 미덥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이성을 다른 무언가에 종속시켰다. 역사(리츨, 쿨만), 감정(슐라이어마허), 예수 그리스도(바르트), 인격적 만남(부버, 브루너), 자기 이해(불트만), 공동체(로마가톨릭 신학자와 일부 개신교), 억압받는 공동체의 경험(구티에레스, 제임스 콘, 엘리자베스 존슨), 열린 미래에 대한 희망(몰트만) 같은 것들이다. 프레임은 이 대안들이 아무것도 고치지 못한다고 본다. 역사도 사건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이니 이성의 대안이 아니라 이성의 탐구다.
슐라이어마허도 감정의 우위를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주장하려 했다. 바르트도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지성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임은 복음주의자에게도 경고한다. 이성 자체에 결함이 있다거나, 이성은 계시를 확인하는

저자이자 최종 척도로 인정하지 않고 이성을 자율적으로 쓰려 한다는 것이다. 해법은 덜 이성적이 되는 것도, 이성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다른 모든 부분과 함께 이성도 은혜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언약의 주님 아래서 거듭난 사람답게 이성을 새롭게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

1. 후기 자유주의도 '자율적 이성'은 유지
2. 역사·감정·만남 등으로 이성을 대체
3. 그 대안들도 결국 이성적 작업이다
4. 문제는 이성의 본성이 아니라 타락
5. 해법: 이성을 버리지 말고 거듭나게

📜 7. 순환성은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면서 그 평가의 추론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면 일종의 '순환'이 생긴다. 프레임은 이 문제를 『신지식론』과 이 책 1장에서 다뤘고, 뒤의 부록 E에서도 이어서 다룬다. 그의 요점은 이렇다. 생각의 가장 근본 원리를 증명하려는 논증은 언제나 순환적이다. 이성이 최종 기준임을 보이려면 이성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감각 경험이 최종 기준임을 보이려면 감각 경험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역사, 감정, 경험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합리성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려 할 때 '순환논증'이라는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른 모든 사고 체계도 같은 처지다. 게다가 앞에서 보았듯, 하나님의 말씀과 맞물린 추론만이 무의미로 무너지지 않는다.

1. 말씀으로 말씀을 평가하면 순환이 생긴다
2. 근본 원리의 증명은 늘 순환적이다
3. 이성주의·경험주의도 똑같이 순환한다
4. 순환논증이라는 비난을 두려워 말라
5. 말씀에 맞는 추론만 무의미를 피한다

"논증은 사고의 궁극적 원리를 입증하려고 할 때 항상 순환적이다."

📜 8. 피조물의 이성: 하나님만큼 알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프레임은 아직 말하지 않은 이성의 한계 하나를 덧붙인다. 다른 모든 인간 능력처럼 이성도 하나님이 자신을 아시는 만큼 남김없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 눈에는 타당한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논증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논리를 더 잘 아시고 전제가 참인지도 더 잘 아시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에게는 앞뒤가 안 맞아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일관된 진술도 있을 수 있다. 프레임이 드는 예는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악을 예정하신다'이다(그는 악의 문제와 주권·책임의 역설을 『신론』 8~9장에서 다뤘다고 밝힌다). 이성은 자신이 신적이지 않다는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고, 역설적이게도 그 인정이 이성이 해야 할 합리적인 일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은 다른 모든 것처럼 추론에도 적용된다. 하나님의 더 높은 지식은 인간 논리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인간 논리의 전제이자 타당성의 조건이다. 이 한계를 부정하면 하나님 생각의 우위를 부정하고 인간의 자율을 주장하게 되며, 자율은 결국 자기모순으로 끝난다.

1. 이성은 하나님을 '남김없이' 알 수 없다
2. 우리 눈의 모순이 하나님께는 일관일 수도
3. 한계 인정이 이성의 합리적 과제
4.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은 추론에도 적용
5. 한계 부정 = 자율 주장 = 자기모순

⚖️ 오해와 반론

📖 용어

이성: 프레임의 정의로는 두 말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논증이 앞뒤가 맞는지 판단하는 인간의 능력이다. 보고 듣는 능력처럼 좋지만 틀릴 수 있다.

자율(지적 자율성):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이 스스로 법이 되고 최종 판사가 되려는 태도다.

전제: 논증을 시작할 때 이미 참이라고 깔고 들어가는 가장 밑바닥 확신이다. 프레임과 반틸은 모든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기술적 의미와 규범적 의미: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추론을 그대로 가리키면 '기술적', 마땅히 그래야 할 바른 추론만 가리키면 '규범적' 의미다.

삼단논법과 타당성: 두 전제에서 결론을 끌어내는 논증 형식이 삼단논법이다. 형식이 맞으면 '타당하다'고 하지만, 타당하다고 해서 결론이 참이라는 보장은 없다.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 좁은 뜻의 합리주의는 감각 경험보다 이성에 더 권위를 두는 철학 학파다(데카르트, 스피노자). 경험을 앞세우는 로크, 버클리, 흄 같은 경험주의와 맞선다. 넓은 뜻으로는 하나님 없는 모든 자율적 사고가 합리주의이면서 동시에 비합리주의로 흐른다(제3장).

순환성: 결론으로 증명하려는 것을 이미 증명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프레임은 가장 근본적인 기준을 증명할 때는 누구나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지성의 희생(sacrificium intellectus): 믿기 위해 생각과 판단을 포기하는 것이다. 바르트도 이것을 거부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개혁파의 기본 원리다. 프레임은 이것이 생각과 논리에도 적용된다고 말한다.

관점주의(규범적·상황적·실존적 관점): 같은 주제를 기준(하나님의 말씀), 상황(세계와 사실), 사람(주체의 내면)이라는 세 각도에서 함께 보는 프레임의 방법이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프레임은 이성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가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독립해 최종 판사가 되려는 '자율적 이성'이다.
- 이성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틀릴 수 있고 타락했다. 좋은 추론에는 맞는 형식과 참된 전제가 함께 필요하고, 그 전제의 궁극적 근거는 하나님이다.
- 바르게 작동하는 이성은 하나님의 권위를 고려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성을 역사·감정·경험 등으로 바꾸는 현대 신학의 시도는 해법이 되지 못한다.
- 해법은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이성으로 언약의 주님 아래서 생각하는 것이다. 근본 기준을 세울 때의 순환은 누구나 피할 수 없다.
- 이성은 피조물이다. 하나님만큼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이성의 가장 합리적인 일이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5편 · 계시를 뒤집은 현대신학 · 이성·역사·체험이 말씀 자리에 앉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